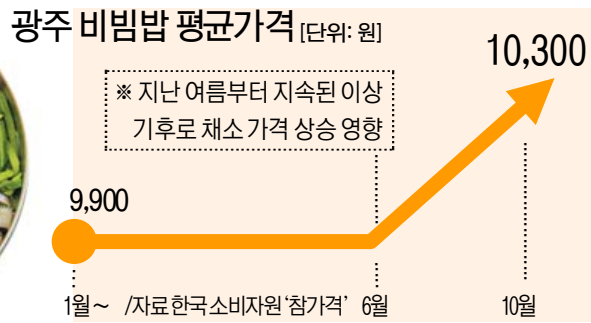


광주 주요 외식 품목 인상...비빔밥 1만원 시대

16개 시도 중 3번째 높아...전년대비 6.18% ↑ 지난달 광주 8개 중 6개 올라...“안정화 필요”

광주 외식비가 고공행진하면서 지역 민들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비빔밥마저도 1만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외식비빔밥 평균 가격은 1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전북(1만1천600원)과 서울(1만1천380원)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

번째로 높은 가격으로 올해 1월만 하더라도 9천900원이었다. 1월-6월까지 이 같은 가격을 유지하다가 지난 7월 처음으로 1만1000원을 돌파한 뒤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상승 원인은 지난 여름부터 지속된 이상기후로 인해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비빔밥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비빔밥을 포함한 냉면, 김치찌개, 칼국수 등 지난달 주요 외식 품목 8개 중 6개의 가격이 전년 대비 올랐다. 비빔밥 한 그릇이 지난해 10월 9천700원에서 지난달 1만300원으로 6.18% 상

승하며 가장 큰 가격 인상 폭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는 김밥 5.69% (3천160원→3천340원), 냉면 5.31% (9천400원→9천900원), 김치찌개 5.12% (7천800원→8천200

원), 칼국수 4.47% (8천400원→8천800원), 삼겹살 200g 4.49% (1만4천844원→1만5천511원)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삼계탕 (1만6천400원)과 짜장면 (6천800원)만 유일하게 가격 변동이 없었다. 이처럼 외식 가격은 한 번 오르면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대개 경제 규모 확대는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데다 상품가격 인상은 인건비, 임대료, 재료가 인상과 사업자의 수익창출 의지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차원의 식자재 가격 안정화

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기본적으로 외식물가라고 하면 재료비와 인건비가 바탕으로 현재 모두 올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외식물가가 떨어지는 것은 거의 희박한 상태로 정부 차원의 농산물가격 안정화를 통해 지금보다 빠르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 지역 개인 서비스 요금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미용만 동일했고 세탁 2.73%, 숙박 7.60%, 이 용 4.61%, 목욕 8.33%가 올랐다. /안태호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12일 오후 2시 순천제일대학교 도서관 지하 1층에 순천디지털시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산인공 전남지사 제공>

산인공, 지역 산업인재 경쟁력 강화

전남 첫 국가기술자격시험 전용시설 '순천디지털시험센터' 개소 올해 정기 제3회 실기시험부터 운영...연 4만여명 수험생 혜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역 인재 양성과 산업 인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시험센터를 전남도에 처음으로 선보인다. 1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 전남지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순천제일대학교 도서관 지하 1층에 순천디지털시험센터(이하 '순천DTC')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천학기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이경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 성동제 순천제일대학교 총장 등 50여명이 참석해 전남도 1호 디지털시험센터의 출발을 격려했다. 순천DTC는 CBT(Computer Based Test) 기반 시험 환경을 제공하고 공단이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 규모는 CBT 기반 필기시험실 4개, 다목적(CAD, 제도시험 등) 실기시험실 1개 등이며 실시간 시험 모니터링, 자동 채점 시스템 등도 갖추고 있

어, 응시자들에게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 제3회 실기시험을 시작으로 연간 4만명의 수험생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시험장 확보의 어려움으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와 응시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주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구 산인공 전남지사는 “순천디지털시험센터의 개소는 지역 산업인재 양성에 대한 공단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양한 고객 만족 서비스로 응시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안태호기자

광주은행, 상생경영·인재 양성 앞장

전남평생교육진흥원에 장학금 5천만원 기탁

전남도는 12일 “광주은행이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전남교육진흥원에 인재육성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고병일 광주은행장,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이 참석했다. 1988년 설립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소상공인 등 저신용 고객을 위한 특화 점포 '포용금융센터'와 임직원 봉사 단체인 '지역사랑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금융 상생경

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지역 인재 양성에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억 4천만원을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범희승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대표 은행으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광주은행에 감사드린다”며 “장학금은 지역 인재가 꿈을 펼치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소중히 쓰겠다”고 말했다. 전남인재육성후원금은 2019년부터



총 143억원이 모금되는 등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인재육성 장학금·후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https://www.jntle.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1-285-9465)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정기자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 조찬세미나 성료

박성주 광주경찰청장 초청 특강

(사)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는 12일 제105회 조찬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연수원 1층 컨벤션홀에서 연합회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박성주 광주경찰청장을 초청해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정권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융합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면서 이뤄지며, 기술과 분야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기회가 된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대한민국 차원의 미래에 대한 이해와 새로

운 시각을 넓힐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주 청장은 강연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과학치안과 선도적 미래 경찰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치안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세계 일류의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융합 광주·전남연합



회의 조찬세미나는 각 분야의 성공한 CEO와 전문가를 초청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은슬기자

여름철 침수대비 행동요령

- # 침착하게 # 안전하게 # 신속하게
- 보행 시, 침수지역 및 하수도, 맨홀 근처 접근 금지
- 지하공간 이용 시,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
- 차량 이용 시, 지하차도 진입 금지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365일동화같은 즐거움! 봉선동화시장으로 오세요!

봉선시장의 이모저모

<동화적 즐거움이 있는 시장>

새로워진 봉선시장 게이트 | 어린이 전통시장방문 프로그램 | 봉선동화축제 퍼레이드 | 2018 전국우수시장박람회 대통령상 수상 | 사랑의 김장나눔축제 | 나눔물품 기부

<지리와 함께하는 봉선시장>

흥이 나고 부자되는 상인, 놀이가 있는 부담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봉선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남구 문의 : 062)650-2099